

밀원 · 약용식물로 이용가치 높은 익모초

윤은영/충남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전화 0417-584-3064)

속담에 “남이 장에 간다
기에 씨오쟁이 지고 따라나
선다”는 격으로 우리 집안
들은 술을 들지 못하는 대신
꿀벌을 쳐서 꿀을 따서 때때
로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꿀물을 마실수 있게 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습성이 완전히 몸에 밴
생활로 꿀벌과는 인연이 깊
은 셈이다.

맹자삼천지교(孟子三遷之
教)와 같이 필자의 나이 16
세까지는 선친 슬하에서 보
고 듣고 배운 것은 근면성실
출공입지(勤勉誠實 出空入
持)라는 여덟 글자 테두리에
서 현재 나이까지 지켜왔기
에 자그나마 무에서 유를 창
조하는 꿀벌과의 인연이 끊
이지 않았던 원동력이라고
나 할까.

필자는 전생에서 무슨 못된 죄를 졌는지 몰
라도 그저 땅파고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렸을
뿐 어리석고 졸렬하며 이기심 없이 오늘날까
지 일일 삼식을 거른 일없이 살아온 낙오인생
이긴 하나, 한 때는(1937~1942) 농업계의 대
혁신상 선두주자 노릇을 한 일과 한국 미래의
농업노동력 전환방안론(1949~1950)을 정부당
국에 건의하여 승인 받은 바 있으나, 나에게는
분수 넘치는 일로 간주되어 후계 적임자에게
영광을 양보한(1950~1960) 후 고향에 낙향하
였다. 고향 근교인 충북 음성 · 괴산에서 10년



윤은영 선생은 19913년생으로 고회를 넘기시고도 米壽의 당년 88세. 지금도 충남 천안에서 고정양봉을 계상별 50 군으로 아카시아꿀 5드림을 채밀하는 노익장이신데, 집에 갇혀있으면 오금이 저려 못 살것 같다며 양봉학회-아카시아 나무연구회-양봉협회총회 등 행사마다 빠짐없이 찾으시고, 협회사무실에도 가끔 찾아주신다. 1990년에 찍은 사진.

간 살면서 4H클럽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당시는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이 전개된 명칭이 ‘연료림 조성’일지언정 본인의 뜻은 ‘밀원림 조성’이 주제로 삼아 관내 9개면 마다 봉군입식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아 군민의 협조와 성원도 컸다. 4H클럽을 통솔하는 지도자는 농업 기술인으로서 애국혁명이 정신이 아니고서는 활동에 손발이 맞을리 없다.

심지어 충북 전지역에서 수집한 아카시아나무 씨앗을 가져다가 괴산군 각 면마다 소두 한말씩 육묘하도록 하여 길러낸 묘목을 모두 심었으니, 이 품이 괴산군과 몇몇 면까지 전파되어 10년내 전도에서 가장 연료림이 풍족한 면으로 평가되어 군청내

각 주무계장급 90%가 영전을 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회고하건데, 40여년 전인 1960년 그 당시와 새천년을 맞은 지금의 양봉농 가구수와 사양 봉군수등 양봉규모와 전 국토에 분포돼 있는 밀원수종 별 실태 등을 견주어 볼진대, 밀원증식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양봉경력이 많고 노련한 선배 봉우들에게 진정한 양봉인다운 지조와 긍지를 가져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지금 5월 한 달에 편중돼 있는 아카시아 밀원도 50~60년대에 심어진 것으로 수령 30

년 고비에 이른 나무들이다. 앞으로 다른 수종에 자리를 넘겨주고 점차적으로 아까시나무림 면적이 줄어들 것이란 조사보고도 있지 않은가. 양봉은 어디까지나 밀원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인데, 밀원에 투자하지 않는 모든 양봉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앞으로 양봉업의 장래를 어떤 진로를 개척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다. 행여나 꿈무늬를 빼고 와견천장(臥見天帳, 남의 어깨 짊어 뛰어넘기) 하는 것은 아니겠지...

우자(愚者)의 자과호언(自誇豪言)이오나 나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취미양봉을 시작으로 1960년에는 4H클럽 농촌지도자 활동으로 양봉기술을 보급했다. 충북농촌진흥원을 비롯해서 진천농촌지도소, 음성군 농협, 괴산군내 독지가, 음성군 농협, 제천군내 주민 독지가, 도유림 사업소, 강원도 정선군 농촌지도소 등 관계기관에서 맡겨진 봉군들을 관리하면서 양봉기술 지도를 했던 것이다. 1960년대 밀원증식을 함께 생각하며 실천했던 기억으로는 아까시나무 식재본수가 3년간 2만여주 가량 될 것이다. 그 후로도 수유나무, 회화나무, 층층나무, 쥐똥나무 등을 양묘하여 이웃 양봉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아직도 종자용으로 심어진 밀원수가 10~15본이 남아 있다. 특히 수유나무 묘목은 98년 양봉협회보 12월호에 소개된 후부터 양봉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작년 봄에 경북선산·상주, 충북 충주·음성·괴산·연기, 충남서천·금산·천안, 경기성남, 서울 등지의 봉우들이 수소문해 찾아왔길래 묘목을 분양해 주었다.

밀원증식이란 말을 꺼내면 예전엔 “남 좋을 일”로 치부해버리는 양봉인들이 많았는데 요즘들어서는 생각들이 바뀌었는가 내가 길러낸 묘목과 씨앗을 분양해 달라는 양봉인들이 많아져서 없는 힘에 절로 힘이 솟구치는 기분이다. 밀원증식을 양봉가 손에 의해 심고 이용하는 것 보다는 밀원식물자원이 양봉과 관계없

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인식되어 보급되어야만 밀원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필자의 경험상 얘기를 꺼낸 본다면 1965년 익모초 재배에서 7월초에 중예(中刈) 출하로 10a당 2,500kg과 강원도 정선과 제천 약영시장에서 구입한 5500kg 도합 8,000kg을 일본 神戸市 國立製藥會社 側에 kg당 2.5\$에 처녀수출한 바 있다. 그리고 1968~69년에는 밀원용으로 보리후작으로 들깨를 3ha에 심어 80가마를 수확하고 또 벌 40군에서 월동양식을 넉넉히 남기고도 채밀량은 2드럼이나 되었다. 1969년도에는 연초 후작으로 1ha에 메밀을 심어 60되를 수확하여 부산 상인에게 매각 대금이 백미 28가마에 맞먹었으니 황색연초 대금보다 더 많았고 벌꿀채밀 수확은 1.5드럼이었다.

지난 1월7일 양봉협회를 방문했더니 김충겸 국장과 밀원식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카시아밀원 다음에 후속 밀원이 절실한 한국 양봉생산성 문제해결을 위해 밀원 이용가치 높은 수종을 꼽은 바 있다. 그 때 나는 양봉협회보에서 수유나무를 부각시켜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외에도 회화나무, 익모초 두가지를 추가로 추천했다. 현재 한국의 양봉인 사회에서는 밀원수 재배 얘기만 나오면 코방귀만 치는 상황이란 말에 김국장은 그 얘기를 원고지 15장 분량으로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문비재(短文非才)한 솜씨로는 엄두가 나지 않으나, 수유나무에 비견되는 경작밀원식물로서 필자가 1965년 익모초(益母草) 재배 경험과 미래 소득원 작목 재배와 신소재상품 판로개척에 대한 좁은 소견을 다룰까 한다.(편집자註; 윤은영 선생은 米壽(88세)의 나이에 아직도 고정양봉장에서 계상별 50여통을 치고 아카시아꿀 5드럼을 채밀하는 보기드문 노익장이다. 지난 이달 초 본협회를 방문하셔서 하시

는 길이라면서 홍교수에게 수유나무꿀과 수유 나무씨앗 1되반쯤(약 2kg정도 되는 양)을 맞바꿔 왔다면서 씨앗 절반을 협회에 넘겨주시고는 이 육필원고도 넘겨받았다. 편집중에 중간중간 필독치 못하는 부분분이 많아 고생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익모초(益母草)

요즘사람들은 일개 잡초에 불과할 정도로 천대하고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쓰디쓴 풀로, 밀원적 가치로는 꿀풀과(科)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있을 호탐하는 퍼플루세스트립은 거의 종적을 감춘바 있지만, 설령 어딘가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밭에서 재배할 바에야 꽃에서 꿀만 따고 기타 대공은 내버리는 소재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익모초는 내버릴 것은 묵은 등치 뿐이다.

개화는 7월 중·하순부터 9월말까지 만 2개월 동안 무한화서로 꿀벌의 방화시간은 오전 6시부터 일몰까지로 밀원가치가 높기로는 내가 보기엔 그 이상 없다. 꿀맛은 기분상 약간 쓰긴 하지만 채밀후 일주일 지나면 쓴맛이 완전히 가신다. 이 익모초꿀은 들깨꿀과 같이 1~2년간 두어도 솔지 않으며 꿀값은 여느 꿀 값보다 3~5할 정도 더 가산해 준다. 산후부증에는 더 없는 탁월한 약효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 새 댁이 있는 집주인 남녀들이 시세워 사가기 때문에 꿀을 판매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채밀 능력에 있어서는 필자의 경험으론 10a의 재배면적에 주변의 들깨 밭도 수월찮게 있었기는 하였으나 봉군 40군(단상 38군과 2단 계상군이 2군)이었는데 단상 38군은 아카시아 유밀 말기에 왕봉갱신 관계로 만군이 아닌 7~8매 군이었고 계상 2군은 본래부터 종자별로 1년생 구왕군으로 상하 20매군이였다. 이 때 벌의 방화상황을 살펴 본 즉, 들깨밭 보다는 익모초 밭으로 더 많이 날아가 역사를 했으며 채

밀은 8월 하순에서 9월10일경 2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상군에서는 계상의 저밀소비 40매, 단상 38군에서 첫 번째는 2매씩 72매를 채밀했고 2회째는 90매를 채밀했다. 채밀소비 202매에서 양면 공히 1/3면을 봉개한 소비에서 15斗(말)이고 월동사양을 전혀 하지 않고 다음해 봄 3월까지도 봉군내에는 봉개소비가 1매 이상 남아 있었으니 유밀능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익모초의 약용가치

기원전 3세기 경 서로마 제국(帝國)이 게르만 족(族)을 침입 멸망시킨 이후 구라파의 중세기까지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 당시 밀월(蜜月)이란 풍속이 생겨 신혼부부가 되면 의례한 달간 봉밀주를 마시는 것이 습성화의 기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1613년을 경유(經由) 1938년을 지난 현재까지 남녀노소 및 부귀천 구별없이 선호애용하는 전통 간음(間飲)제로서, 보음(補陰), 보양(補陽)에 쓰이는 고귀한 단용 한약재로서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유한 약효를 가진 약초이다.

밭상으로 태어난 남녀의 미안색으로 바꿈에 있어 3~5차 복용하면 안색이 화려해진다 하여 시집가기 전의 여인일수록 의례 복용하였으며, 남편에게 소박맞은 여자가 출가 후 아기를 못낳은 여자는 산후부증 식욕부진, 신체 쇠약, 노쇠방지 등에 흔히 말하는 초학 어혈(瘀血) 등에 쓰이는 잡초에 불과한 것이다. 1613년에 저술한 '태산집요'와 '구급방' 또는 '허준'공이 저술한 '동의보감'에서도 밝힌 바 있거니와 18세기의 인물 '이제마'의 저술인 '제중신편'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람마다의 입맛 감별상 오미(五味)가 있어서 달고, 쓰고 매운 맛이 일단 위(胃)에 들어가 최대 5~6시간이 되어 신맛으로 변화됨으로써

양분화 되고 체내에 흡수(봉밀은 위에 들어가면서 12분 이내에 위벽에서 흡수된다) 소창을 경과 대장을 통과하는 동안 필수 양분을 흡수하는 동안 40% 이상의 쓴맛으로 변하여 잔유물이 배설되는데, 쓰디 쓴 익모초액은 위에 들어가 위벽에서 흡수 체내의 신경을 경유 체세포 내에 저장되는 속효성 약제로 봉밀과 같아서 발육이 왕성한 여인이 매일 공복에 복용하면 하루가 다르게 얼굴빛이 화창한 빛을 띤다.

3. 익모초의 재배법

월동작물이면서 속근초이다. 정밀 재배시 종자는 반당(反當) 2홉, 묘상면적은 24m² 정식시기는 봄 가을 형편에 따라한다. 반당 주수 12,000주에 시비량 부식퇴비 2000kg N 0.8, P 0.6, K 1.0. 정경(精耕) 2회. 묘상설치는 폭 1.2m, 세말퇴비 15kg중 12kg 기비(基肥), 3kg은 종자 복토용으로 쓴다. 종자는 미리 발아를 시키되 아구가 틀 정도에서 물조리구멍이 약간 큰 것을 사용하되 물조로에 물을 담고 아구가 튼 종자 물조로에 주입 각반하면서 묘상판에 산수(傘水) 2회 실시 후 잔류퇴비분말로 표면에 고루 뿌린 뒤 표면건조방지용으로 벧짚으로 얹게 덮고 바람에 물리지 않도록 세끼줄로 길이로 두 줄을 늘어 동여맨다. 2주 정도지나 발아가 되는데 당년 내 발아율이 40%에도 미치지 않는다. 본 포에 대한 일차 중예(中刈) 수확시기는 6월중하순(초복전) 지상 30cm이상 위치 상단을 균일하게 끊어 1kg씩 1단으로 묶어 당일내 출하한다. 2회 수확은 10월상순 종자채종 후 전량 예취(刈取, 건경) 30cm길이로 절단 1kg 단위로 묶어 출하 준비하게된다. 반당(反當) 채종량은 1말5되 수확이 가능하고 약용과 종자용으로 쓰이는데 종자용 가격으로 30만원을 호가한다. 한번 재배적지에 연 2~3년간 연작

이 용이하다.

4. 약제가공법

여름철 수확된 푸른 싹(芽)은 생즙 음복용할 수 있고 많은 양은 그늘에 말렸다가 점탕 복음용으로 이용되고, 가을철에 수확한 건엽은 소먹이 같이 잘게 절단하여 가마솥에서 오래 삶아서(대공이 허물거릴 정도로) 압착기로 짜낸 국물을 얼개미채로 걸러낸 진액을 다시 엇처럼 고아내서 냉각시켜 환(丸)지어 하나하나 은박지로 싨 것이 1943년경 일산 '테라쁘로' (?)였으니 그 당시 1갑 25개들이 약값이 800원으로 굉장히 고가였다.

필자가 서울 경동시장의 19645년~1970년대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kg에 도매가격 600원 선이었다. 반당 절예(切刈)수량 2,00kg × 600원=1,500,000원이면 시골농사치곤 고추농사의 3배에 해당된다. 10월경 건경 1,400kg × 시가 400원=560,000원이다. 1998~1999년경의 도매시가는 청영경 1단중 800g 3,000원, 건경 1단중 1kg 1,000원으로 대부분 제천 정선 산이었다.

양봉인 입장에서 단순한 밀원증식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호응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일반 독지가가 소득원 작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배 출하하게 된다면 수요는 무한할 것이며, 수요처 마련없이 선두 주창자의 책임을 회피할 길 없어 지금껏 함구무언 해오면서 모 제약사를 불청객으로 방문해서 이런 의견을 타진 한 바도 있지만 일체 호응을 얻지 못하여 때론 울화가 치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약사의 입장에 바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복잡한 생산공정과 판로 문제 등 상품성이 높고 생산성이 있어야 할 것

이란 생각은 들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흘러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다.

매 월요일밤에 방영하는 TV화면에 나오는 인삼엑기스, 당귀집, 녹용탕 등뿐만 아니라 요즘엔 술순집, 동충하초 등등 다양하여 이들 모두가 휘황찬란하건만 4만여 양봉인을 위한 이로운 내용 하나 없이 사치스러운 소비 풍조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이 익모초를 이용한 꿀벌 노세마병 구제법을 하나 소개한다. 당액 1ℓ에 10%의 익모초즙을 섞어 소비면에 살포시 뿌리는 방법. 또 하나 산초와 흡사한 천초나무잎을 절구에 찧어 1:1 당액 1ℓ내에 1/100액을 혼합 각반하여 소비면에 분무했을 때 진드기가 벌몸에서 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러한 익모초와 천초나무 식물에 대한 성분분석 썸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나 이를 필요로 하는 우리 양봉업계서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지면을 통해 건의한다.

끝으로 산초와 천초나무 간에 상이점을 설명한다면 천초나무가지의 가시가 아까시나무와 같이 가시 두개가 쌍붙은 중앙에 화아(花芽)가 형성, 잎을 따서 씹어 맛을 보면 약간 매운 맛이고 나무 줄기의 빛깔은 적갈색이다.

여생을 살만큼 산 필자가 바라옵건대 이상 몇 가지 주제 식물에 대한 유효성

분 함량 여하가 판명되어 마스크에 알려지게 된다면, 학계에선 박사학위 취득자가 나올 것이고, 신소재 신약개발에 제약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게되면 우리 양봉업계의 숙원인 여름철 밀원도 따라서 해결될 것이 아닌가.

종 봉 분 양

- ▶ 조병균(전남 보성군) 011-643-2757 = 200군
- ▶ 신전기(전남 보성군) 011-9804-2229 = 100군
- ▶ 나익수(전남 나주시) 0613-335-3595 = 100군
- ▶ 이기철(전남 나주시) 0613-335-3595 = 100군
- ▶ 김종남(전남 나주시) 0613-333-2080 = 100군
- ▶ 이민호(전남 진도군) 0632-542-4024 = 100군
- ▶ 김동승(전남 나주시) 0613-334-3096 = 60군
- ▶ 한임록(전남 진도군) 0632-543-1304 = 70군
- ▶ 장길부(전남 순천시) 0661-743-2643 = 200군
- ▶ 조병복(전남 무안군) 011-645-1178 = 100군
- ▶ 김달수(광주시 남구) 062-674-0619 = 20군
- ▶ 윤은영(충남 천안시) 0417-584-3064 = 35군
- ▶ 이태숙(대구 달성군) 011-577-8528 = 60군
- ▶ 서진홍(경남 진주시) 017-553-5985 = 100군
- ▶ 정권채(부산시 서구) 0595-882-5042 = 50군
- ▶ 김광제(충남 청양군) 0545-942-1940 = 90군
- ▶ 구본규(울산시 동구) 052-252-4263 = 40군
- ▶ 박종순(경남 하동군) 0595-883-4296 = 200군
- ▶ 원중수(충북 충주시) 019-409-4050 = 200군
- ▶ 류성태(대구시 서구) 018-504-4227 = 120군
- ▶ 김정상(충남 예산군) 0458-335-6957 = 90군
- ▶ 박승현(충남 예산군) 0458-337-1328 = 100군
- ▶ 김기배(충남 예산군) 0458-333-6895 = 80군
- ▶ 박종구(충남 예산군) 0458-334-2275 = 50군
- ▶ 김주학(경북 영양군) 011-9675-6534 = 100군

회관건립기금 답지

- ▶ 前月掲載('99. 12) 누계 31,950,000원
- ▷ 경남 마산시(마창양봉원)
 - 이인규 회원 500,000원
- ▶ 모금답지 누계 32,450,000원